

# LG생활건강, 세탁비누 사업 “포기”

동반성장위, 사업이양 권고 ... 장류 · 막걸리 · 금형도 적합업종 선정

세탁비누, 장류,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9월27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 16개를 발표했다. 포함된 항목은 세탁비누,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 자동차 재제조부품, 순대, 청국장, 고추장, 간장, 된장, 막걸리, 재생타이어, 떡, 기타인쇄물, 절연전선, 아스콘 등 16개이다.



동반위는 16개 품목을 권고 정도에 따라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 3단계로 구분해 발표했다.

세탁비누는 대기업인 LG생활건강이 시장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철수하도록 하는 <사업이양> 권고를 했다.

또 골판지 상자와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 자동차 재제조부품은 국내시장의 대기업 신규진입을 자제토록 하는 <진입자제> 품목으로 선정했다.

순대, 장류, 막걸리, 떡, 기타인쇄물, 재생타이어, 절연전선, 아스콘은 사업

확장을 자제토록 하는 <확장자제> 품목으로 확정했다.

특히, 논란이 일었던 장류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을 자제하고 저가 시장에서 철수할 것,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막걸리 역시 내수시장으로 대기업이 진입을 자제토록 했으며 대기업은 수출시장에 전념토록 했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두부나 데스크톱PC, 내비게이션 등은 1차 선정 품목에서 제외돼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차 검토품목 45개 중 16개를 제외한 29개 품목에 대해 10월 추가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1차 검토품목 외에 신청이 들어온 173개에 대한 검토작업을 2011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선정작업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조정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대기업의 이행 여부를 조사해 주기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7>